



고전 마르크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서 있는 마르크스

이 책은 런던경제대학 교수이며 영국노동당 의원이기도 한 메그나드 데사이(Meghnad Desai)가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개관한 것으로서, 경제사와 경제학사를 혼합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데사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이기는 하지만, 신리카아도주의와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 경제이론을 해설한 몇 가지 교과서류 이외에는 이렇다할 독창적 연구 업적을 낸 것이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경제사상에 대한 자신의 연구 역정을 총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어떤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사실이나 새롭게 고안된 이론체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르크스를 붕괴론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든지, 자본주의가 자신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고갈시킬 정도로 충분히 발전한 뒤에야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든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성립한 사회체제를 노동자국가로 볼 수 없다든지, 좌파는 자본주의 발전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촉진

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든지, 레닌주의적 당조직은 역사적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든지 등등 이 책에서 데사이가 마치 새로운 발견인양 제시하는 주장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와 함께 오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경제결정론적·개량주의적·사회민주주의적 해석들이며,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은 지난 20세기 좌파이론과 정치의 주요 부분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은 데사이의 주장의 원형을 19세기 말 러시아의 이른바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불가코프, 스트루레, 투간바라노프스키 등)과 멘셰비키, 그리고 제2인터내셔널의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데사이는 자신의 자본주의 진보성론이 이른바 '고전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성숙한 마르크스'의 《자본론》(특히 제2권 재생산표식론)과 '청년 레닌'의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1899) 등을 그 전거로 제시한다. 데사이는 이와 같은 '성숙한 마르크스'와 '청년 레닌'의 자본주의 진보성론이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자본주의 붕괴론으

* 이 글을 쓴 정성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메사추세츠대학 경제학과와 미시간주립대학 경제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간 펴낸 책으로는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공저)가 있으며 《마르크스의 사상》 등을 번역했다.

로 변형된 것에 20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데사이는 '고전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했으나 그 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정했던 자본주의 진보성론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한 사태가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와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데사이는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와 세계화를 두고 '마르크스의 복수'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사이의 해석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성숙한 마르크스'와 '청년 레닌'은 데사이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진보성을 이분법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 따라서 한계는 항상 변증법적·모순적 총체로서 인식되었다.

이 책에서 약간 새로운 점, 그래서 튀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데사이가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해묵은 개량주의적·사회민주주의적 왜곡을 반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르크스를 아예 신자유주의 사상의 원조인 하이에크와 동일시한 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데사이는 하이에크의 통찰에 존경을 표하면서 "경제가 국지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행동하는 수백만 개인이 좀더 나은 것을 부단히 모색하는 자기 조직화 과정"이라는 하이에크의 이른바 '자생적 질서론'을 마르크스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340쪽) 그래도 마르크스 물을 오래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로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데사이가 1990년대 들어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신자유주의자 토니 블레어의 주구로 활약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 좌파 상당수는, 데사이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른바 '자본주의 밖의 사회주의 Socialism outside Capitalism'에 대한 꿈을 접고, '자본주의 내의 사회주의 Socialism within Capitalism'로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250~253쪽)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좌파 상당수는 '자

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케인즈주의적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적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런데 데사이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밖의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내의 사회주의'도 세계화된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기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 Socialism beyond Capitalism'를 언급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데사이가 자신의 사회민주주의적 과거를 청산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로 복귀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데사이의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넘어서기'는 현재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가 완수된 다음으로, 즉 기약 없는 미래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데사이가 이 책에서 오늘날도 좌파라면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내의 사회주의'라는 국가를 통한 사회변혁 전망마저 버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데사이의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세계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투항과 안주를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경제결정론적 수사에 불과하다.

데사이는 오늘날 세계화는 그 자체 진보성을 갖는 자본주의 발전의 전 지구적 확산이기 때문에 좌파는 세계화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는 어떤 추상적인 자본주의의 확산과정도 아니라, 신자유주의 지배의 세계적 확산과정인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 헤게모니하에 기존의 국가자본주의가 시장자본주의로 재편되는 자본주의 모순의 전 지구적 심화과정일 뿐이다. 데사이는 나아가 1999년 시애틀 이후 반세계화운동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반동적 운동이라고 공격한다.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마르크스 사상의 혁명적 본질을 제거하고, 마르크스와 하이에크를 동일시하는, 마르크스의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할까? **정성진**

인류의 비밀을 찾아 시공을 뛰어넘는 고고학의 현장들



《고고학 탐정들》 폴 반 루움/김우영 옮김/효형출판/352쪽/값 25,000원

내가 생각할 때, 고고학 발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란 '답답하게 또는 한심하게' 붓으로 인골을 쓸어 노 출시키고 있는 모습일 듯하다. 이처럼 답답하면서도 집요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고고학이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서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가 창설된 1961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그 첫 졸업생이 현재 각 대학의 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나이로 치면 한국 고고학은 현재 장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성취와 그 성취에 대한 비판적 대안들이 모색될 때라고 생각된다.

40년 이상의 연구에 힘입어 현재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우리나라의 고고학적 성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근 약 20년간 초등학교에서 박물관 견학을 필수적인 현장학습으로 포함시키면서 각 박물관의 관람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고학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고고학적 성

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물론 최근 진시황릉의 토용이나 스키타이의 황금보물, 알타이 유물 등 외국의 유물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횟수이다.

책의 제목인 《고고학 탐정들》이란 말은 고고학의 학문적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다. 프롤로그에서 루움은 폴 반은 이론서나 학술서에 보이는 딱딱하고 진부한 설명이 아니라 고고학자를 탐정에 비유하여 현실의 고고학적 작업이 모든 가능한 증거의 수집과 논리적 추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연이나 영감이 주는 행운, 첨단과학을 이용한 해석 영역의 확장 및 증거, 즉 유적지의 보호라는 명제에 입각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명제들은 최소한 한 권의 개론서에서 다루어야 함에도 폴 반은 단 몇 쪽으로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유적은 전 세계, 전 대륙을 망라하여 50군데에 이르는데 이들은 약 400만 년 전의 인류 기원과 관련된 유적에서부터 19세기 난파선 조사에 이르기까지 시공적으로 적절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면 루움은 폴 반의 고고학에 대한 학문적

* 이 글을 쓴 송의정은 서울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고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박물관 밖의 문화유산》 《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 《동아시아와 일본의 고고학》 등이 있으며 서울 암사동유적, 부여 송국리유적, 몽골 우글룩칭골유적 등 국내외의 중요한 고고학 발굴에 참여했다.

혜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얼추 짐작할 수 있다.

12인의 집필진이 분담한 각 유적에 대한 설명은 길지 않은 설명임에도 그 유적이 갖는 인류문화사 상의 의의와 발굴조사 경과, 유구와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통 고고학적 서술에서 시간적 체계보다 문화적 체계에 중점을 둬으로써 자칫 지루해할 수 있는 독자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이는 각 집필자들이 해당 유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저술능력 또한 뛰어난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편은 머리글에서는 그간 세계학계에 비교적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과 구 소련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호미니드의 요람이 동부 아프리카일 것이라는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농경과 도시의 발생에 대한 기존의 학설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엮은이가 꼽은 것은 16곳인데 이는 다른 대륙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 중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중국 구점 동굴,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이라크의 바빌론 등 중동 지역 유적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대부분 1960년대 이후에 발굴되기 시작해 우리에게 생소한, 초기 농경의 대표적 취락유적인 터키의 차탈휘워, 파키스탄 서부의 메르가르, 타이의 콕파농디 등도 소개되어 국내 고고학계에 풍성한 정보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기원전의 초원유목민족 무덤인 알타이의 냉동된 무덤과 중국 현대의 마왕퇴 무덤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다.

유럽 편에서는 오랫동안 고고학적 연구가 있어온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다. 1990년 발굴된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알프스 냉동인간 외치, 2500년 전 지하 300미터에 형성된 할슈타트의 소금광산이 그것이다. 엮은이는 이들을 통한 유럽고고학의 과거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탐문하고 있다. 이 밖에 소개된 유럽의 유적으로는 최소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는 알타미라 동굴벽화, 미케네와 크노소스 궁전, 아테네 등의 유적 외에 영국의 5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여실

히 보여주는 유적인 복스그로브, 돌도끼로 전투를 벌인 흔적을 남긴 독일 남서부의 탈하임 공동묘지, 수상가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기후학을 통해 호반취락으로 다시 해석된 스위스의 코로타이로드, 로마제국의 서쪽 끝 방어선인 북부 브리튼의 하드리아누스 성벽 부근의 빈돌란다 요새와 당시의 생활을 보여주는 편지 등의 유기질 유물 등 열여섯 군데 유적의 조사와 연구과정 및 성과가 소개되고 있다.

고고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인류의 요람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제시한 유적들과 사하라의 알려지지 않은 암각화 유적, 이집트문명의 연구과정과 최신 발굴결과 및 대 짐바브웨 유적을 통해 제국주의 시대의 지문화 중심적 해석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인류역사의 후발 대륙임에도 올센처벽의 들소사냥터 발굴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유물형식학이 아닌 인간행위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고고학 방법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이에 따라서는 세계의 고고학적 유적을 단 순히 소개한 책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각 부분에 최근까지의 고고학 연구에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자연과학적 연대측정법과 발굴조사 이후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 및 이론적 틀이 제시됨으로써 고고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고학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 편에 제시된 엄선된 원색사진들은 고고학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다른 입문서들과는 다른 차원의 생동감을 부여한다.

기본적으로 영어원서를 번역하는 경우 우리말의 문법과 체계가 많이 달라 글의 단위가 길어지거나 초점이 흐려지는 예가 많은데 이 책의 번역자는 대부분의 문장을 간결체로 처리하고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고고학에 관심을 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꼭 권하고 싶다. **송의정**